

4월은 지구를 생각하는 달

□ 4월 5일은 식목일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많이 심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제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 나무는 왜 심어야 할까요?

- 공기정화 능력

가장 큰 이유는 '공기정화'인데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CO₂)를 맑고 깨끗한 산소로 바꿔 줍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자작나무 숲 1헥타르당 연간 이산화탄소 6.3톤을 흡수하고 5.0톤의 산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산소량은 한 해 동안 20명의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양입니다.

- 자연적인 댐

나무는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하여 홍수를 막고 저장하고 있던 물을 천천히 계곡에 흘려보내 계곡물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 산사태 예방

우산효과: 빗물을 받아내 토양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합니다.

말뚝효과: 나무의 뿌리가 흙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그물효과: 나무의 뿌리가 그물처럼 되어 있어 흙을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 함께 실천하는 녹색 식생활

음식의 탄소 발자국: 음식의 전과정 즉, 농산물 생산, 수송 및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환경성적표지

: 탄소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을 CO₂로 환산하여
제품을 인증하고, 그 양을 표시

인증 제품 중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부여



탄소배출권 구매 또는 기타 감축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해
Zero로 만든 제품에 부여



딱!
먹을 만큼만 받아요.



부족하면 다 먹고,
더 받아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



쓱쓱싹싹,
남은 음식물을 줄여요.



올바른 식습관으로
배도 채우고,
환경도 살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식생활

□ 월1회 급식에서 만나는 다채롭데이

월1회 페스코 형태의 채식급식인 다채롭데이가 실시됩니다. 다채롭데이는 채식급식을 제공하는 날로 식물성 식품, 유제품, 알류, 어패류와 생선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날입니다.



채식에는 흔히 알고 있는 비건 외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과일·곡식·채소	유제품	달걀	생선·어패류	가금류	육류
비건	○	×	×	×	×	×
락토	○	○	×	×	×	×
오보	○	×	○	×	×	×
락토오보	○	○	○	×	×	×
페스코	○	○	○	○	×	×

월 1회 채식급식은 **페스코**로 다가갑니다.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변화로 보는 우리나라 절기와 세시풍습: 4월의 청명(淸明)

음력 3월에 드는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 청명(淸明)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4월의 절기(한식)-4월 5일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이라 하는데 이날은 조상의 묘 앞에 떡, 술, 포, 식혜, 국수, 탕, 적을 올렸습니다.